

# 학교로 간 '빈그릇 운동'

## 부산지역 교사·영양사 300명 심포지엄 개최

전세계적으로 한해 15조원의 돈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비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환경운동 '빈그릇 운동'을 이끌고 있는(사)에코붓다(대표 유정길)는 9월 13일 부산시 남부교육청 강당에서 지역 교사와 영양사, 시교육청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교 빈그릇 운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최광수 교수(경상대)는 기초발제에서 '학교 빈그릇 운동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빈그릇 운동의 효과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학교의 경제·환경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줌으로써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교육과정 개발, 정보교류의 장 마련, 급식의 제도적 여건 성숙 및 급식 질 향상, 시범학교 운영 등 빈그릇 확산 및 정착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정희 연세대 동서문예연구원 교수는 "빈그릇 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중

족시키는 발전'이란 의미로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에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성 연구원은 "빈그릇 운동은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며 생태적 원리에 순응하는 인간생활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며 "빈그릇 운동은 미래세대도 동등하게 자연에서 살아가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참여하며 활동하는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사와 영양사들은 '음식 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명 및 모금에 참여했고 이날 마련한 기금은 쓰레기 제로 운동과 굶주리는 아동을 위해 지원됐다. **하성미 기자**

# 호스피스 교육 차원 높인다

## 정토사관자재회, 교육관 마하보디센터 개원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법인이사장 능행)는 10월 7일 오전 10시 울산시 울주군 삼천면에서 관자재교육원 교육관 '마하보디센터'를 개원한다. 정토사관자재회는 1995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고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발원하며 장립한 단체. 1997년 한국불교 간병인협회를 창단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인교육 및 간병인 지원 사업을 이끌어온 정토사관자재회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관을 열게 됐다. 마하보디센터는 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인성개발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불교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연 3-4회 전문호스피스 교육과 사회복지 종사자 위

탁교육 및 노인요양원, 의료기관 종사자 인성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또 기업 중간관리자들과 CEO들을 위한 명상수행, 자아성장 등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관자재회 관계자는 "12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간병인 교육을 이끌어 왔는데 전문 교육 공간이 갖춰지게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자재 병원은 현재 설계 중이며 2008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교육생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43)298-2258 **하성미 기자**

# "홍덕사 다시 세우자"

## 건립 추진위 구성 시민운동 전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된 홍덕사를 복원하기 위한 '홍덕사 건립 추진 결의대회'가 9월 8일 청주 홍덕사지 앞마당에서 열렸다. (사진) 홍덕사 건립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박명)는 이날 각의 스님과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홍덕사 건립을 발원했다. 박명의 위원장은 "1985년에 홍덕사지가 발굴된 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직지>를 존재케 한 홍덕사가 건립되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다"며 "오늘 결의대회는 청주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사명감



을 공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 홍덕사 건립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 홍덕사를 우리 민족의 문화 유적지로 조성해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를 이룩한다는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혜철 대전총부지사장**

# 대중속 佛光 더 환하게

## 불광사 33주년 맞아 '중창' ... 강좌 개최·지역밀착 사보 발간

도심교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온 서울 잠실 불광사(회주 지홍)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대중강좌와 지역밀착형 사보발간 등으로 대중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1974년 <월간 불광> 발행을 시작으로 1975년 불광법회 창립, 1982년 잠실 불광사 창건에 이르러 33주년을 맞이한 불광사(회장 지홍)는 대중 불교·도심교회의 새 모델을 일궈냈다. 불광사는 오는 10월 16일 창립 33주년을 맞이해 안으로는 '불광 중창불사'를 통한 포교 인프라 구축에, 밖으로는 대중강좌와 새로운 개념의 사보 <공감 Plus> 발간 등을 통한 대중 포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불광사가 자리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인근 강동·광진·성남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잡지 형식으로 꾸려졌다. 올림피아공원과 방이동 습지 탐방, 한성백제 문화제와 송파장터 현장, 송파여성축구단과 석촌호수 지킴이 김형진씨 인터뷰 등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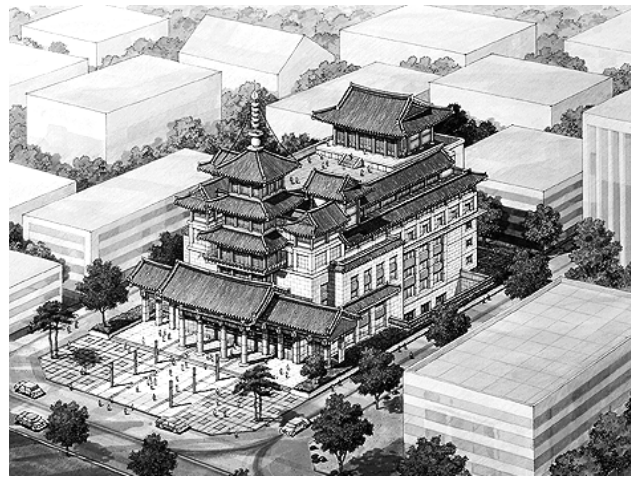
<공감 Plus>는 격월간 무가치로 발간된다. 불광사는 창간호 700여 부를 지역 교육시설과 관공서·복지단체 등에 발송했고,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 등에 비치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불광사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무비 스님 초청 불광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창립기념행사 및 불광사 중창불사 추진위원회 부속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정과 불교'를 주제로 대중강좌도 연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산하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정과 불교' 강좌는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가정생활 속에서 불법(佛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는 김인숙 교수(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의 '부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10월 10일), 김중서 서울대 명예교수의 '불교적 자녀교육의 해법' (10월 17일), 최훈동 한밭정신병원의장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상' (10월 24일), 양진명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의 '대화로 풀어나가는 가정' (10월 31일), 이영호 한국생활개선전교회 책임연구원의 '함께 가는 불자가정' (11월 7일)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불광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200명만 접수를 받는다. (02)417-255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광사가 지역의 문화와 정보를 담아 펴낸 새로운 개념의 사보 <공감 Plus>(사진 위)와 불광사 중창불사 조감도.

지홍 스님은 <공감 Plus> 창간사를 통해 "우리 지역 곳곳을 발로 뛰어 발굴한 정보를 독자와 공유함으로써 지역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종교와 지역, 연령, 직업을 떠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스리랑카, 사마디 불상 기증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정부수교 30주년을 맞아 부산 태종사(조실 도성)가 사마디 불상 및 발우탑을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기증받았다. 9월 14일 부산 태종사에서 봉행한 제막식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 정각 스님, 부산 대각사 회주 경우 스님, 박인태 부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과 스리랑카 복지부 장관의 각료 3명, 사절단 및 수행원 50여명이 참가했다. 스리랑카 정부의 사마디 불상과 발우탑 기증은 1983년 전두환 前 대통령님 동남아를 순방할 당시 우리나라의 수교를 기념으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나무를 기증한 이래 두 번째. 현재 태종사에는 그 당시 우리 정부로부터 인수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나무도 함께 봉안되어 있다. **하성미 기자**

## 부산서 '채식 세미나' 개최

부산경남지부 생명사랑채식실천협회(대표 고용석)는 10월 3일 오후 3시 부산 서면 영광도서 4층 사랑방에서 '지구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인 삶'이란 주제로 채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석 대표가 '채식과 종교'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가 '채식과 생명사랑'을 설명한다. 이어 성심정보고등학교 변환운 교사가 '채식과 환경', 이영선 치과의원 원장이 '채식과 건강'을 주제로 강연한다. 참가비는 무료. 018-213-7541

## 고창군에 복지시설 3곳 수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장 정남)이 전북 고창군 내 복지시설 3곳을 수탁했다. 그간 복지시설이 없었던 고창군은 최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지난 9월 7일 고창군복지시설 위탁운영체심사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수탁한 3개 복지시설은 선운사(주지 법만)와 재단이 연합 결성한 '조계종복지재단 선운사지부'가 운영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남 스님은 "고창군 시설 위탁을 기점으로 그간 취약했던 전북 서남부권에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후원 : (국민은행)038-25-0008-365 예금주:에이치비엠씨

Beomeosa Korean Seon Festival 2007

# 禪

행복참선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the Korean Seon (Buddhist meditation) with Happiness

# 2007 범어사 개산 선문화 축제

2007년 10월 12일(금)부터 10월 14일(일)까지 장소 : 선찰대본산 범어사

개산 1329년

**주요행사**

강연행사 : 행복불자가족 참선법회 (출연 : 방송인 강부자), 명사초청 행복불자강연 (출연 : 작가 박범신), 스님초청 행복참선강좌 의식행사 : 폐불, 범요식, 다비식

전시행사 : 본·말사 문화재 전시(전적특별전 및 무용거사 전각전시), 미안마 불교문화 사진초대전, BBS 사진기회 사찰사진 전시(연꽃 및 사찰풍물사진전), 중간작가 초대전(아름다운 동행, 야단법석전), 사경전시, 금니달마 전시

체험행사 : 가족사랑 명상걷기대회, 범어사 가람순례 선문화 체험, 선문화축제 템플스테이, 사찰선차 및 다과 체험, 한국 전래문화 체험, 불무도 체험, 의상대사 백일장 및 사생대회

공연행사 : 개막식 및 합창제 (초대가수 : 이은미) - 가족행복 기원동 발하기 산사가족음악회 (초대가수 : 웅산) - 비보이 & 퓨전국악, 순정록 외 성악가 3인, 기라향우리춤연구소,

**참가 및 접수 문의** [www.beomeosa.co.kr](http://www.beomeosa.co.kr)

범어사 개산 선문화축제 봉행위원회 : Tel 051) 508 - 3023 Fax 051) 508 - 3034

주최 : 선찰대본산 범어사

주관 : 범어사 개산 선문화축제 봉행위원회 (주)리컨벤션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부산불교거사협회, 부산광역시, 부산불교실업인회, 범어사 신도회,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금정구청,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釋利大本山 金井山 梵魚寺